

## 일본우익의 현실인식 대변하는 논문모음 호전적 극우파들의 '솔직한' 독설 한자리에

—「가자! 다시 朝鮮으로…」 엮은 박태건씨

이 책 그 사람

한동안 분단구조로 인해 물밑에 가려졌던 한일문제가 최근 무역역조란 현실과 청산되지 못한 역사인

정신대 문제가 대두되면서 여론의 조명을 받고 있다. 단 한반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이 바뀌지 않았던 한국인과 일본인들에게 '반일'과 '혐한'의 양극은 어쩌면 당연한 역사의 침전물일 수 있다. 그러나 반일의 연성을 높이면서도 우리는 그들의 혐한의 목소리에는 귀기울이지 않는 잘못을 범하고 있으며, 정부나 언론에 의해 통로가 차단됐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책제부터가 섬뜩한 「가자! 다시 朝鮮으로 世界로」(백산서당)는 도외시하고 금기시했던 일본 우익의 발언을 그대로 전하는 귀중한 자료로 읽힌다.

매스컴의 인용문으로만 접하던 그들의 목소리를 생중계하는 이 책을 편역한 문화일보 박태건기자(35)는, “일본 우익의 색깔은 선명하며, 이들이 권력 상층부를 장악하고 있는 한 그저 몰상식한 자들의 터무니 없는 얘기로 간과 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 책을 냈다”고 말한다. 국제부에서 근무하는 그에게 하루에도 수십종씩 건내지는 일본의 일간지, 주·월간지에 실린 우익들의 주장은 놀라운 것들이었다.

그 놀라움은 「현대 코리아」의 사토 가쓰미 주간이 김영삼대통령 취임에 즈음해 쓴 ‘반일 어리광 그만 피워라’란 글에서 충분히 전달된다. 그는 “일한관계 개선에서 한국은 일본의 일방적 노력 촉구를 중단하고 일한조약을 직시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어 “반일을 흥정수단으로 사용하는 한국은

기술이전 요구보다는 자체개발 노력을 해야 하며, 과거에 짐착하지 말고 대일자세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정신대 문제에 대한 일본 우익의 입장은 또 이렇다. 「諸君!」지에 게재된 글에서 다쿠쇼쿠다 다나가 아키라교수는 “한국의 운동가라는 자들이 예전에 몸을 팔았던 여성을 걸로 꼬집어내고 있는데, 이 자들은 운동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인종들이다”라고 매도를 서슴치 않는다. 이밖에도 이 책에는 “정신대는 징용이 아니었으며, 이미 보상은 끝났다”는 식의 주장과 “자위대를 더 한층 강화해야 하며, 아시안은 ‘강한 일본’을 원한다”는 호전적 극우파들의 독설이 가득 실려 있다. “이 자료집이 일본의 전체의사를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평화세력에 비해 일본의 주도세력이 우익에 가깝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들보다 더 무서운 세력은 방심으로 일관하는 우리 자신일 겁니다.”

그 예로 박태건씨는 서문에서 노태우·전두환 두 전대통령의 인터뷰 내용과 “과거의 친일은 매국이었으나 현재의 친일은 애국”이라고 말한 김제순 전 국회의장의 망언을 들고 있다. 박태건씨는 덧붙여 일부 정치인들의 그릇된 대일관도 문제지만, 정신대 문제에 오히려 일본인들이 앞장서고 있음을 전하면서 “역사의식을 갖고 꾸준히 한일문제를 생각지 않는 대다수 우리의 정신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래서 그는 요즘 자발적 시민운동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한다며, “이 책의 인세를 정신대 할머니들에게 드리겠다”고 말한다.

—최태원 기자



## 심미적 현실 혹은 정서적 공감의 비평 국내서 번역안됐던 유일한 바슐라르저서

—「공기와 꿈」번역한 정영란 교수

이 책 그 사람

가스통 바슐라르의 여러 저술 가운데서 그동안 국내에 소개되지 못한 채 유일하게 남아 있던 「공기와 꿈—운동에

관한 상상력 연구」(민음사)이 최근 번역됨에 따라 난해하다는 평이 반드시 따라붙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독자들과 유독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던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문학자인 그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다.

57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방대한 역서는 역자가 8년여간을 번역에 매달렸다는 물리적인 시간의 상당함에 값하는 꼼꼼하고 읽기 쉬운 문장과 방대한 양의 주를 달고 바슐라르를 사랑하고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국내독자들과 반갑게 조우하게 됐는데, 번역자 정영란(방송통신대 불문과, 39) 교수는 “대학원수업을 하며 바슐라르의 역서들을 학생들에게 전부 읽어보았으나 학생들이 번역된 그의 문맥을 정말이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안타깝기 그지없었던 체험”이 그가 후에서 밝히고 있듯 “재속 은수자처럼 노동의 나날로 그 긴시간을 인내”하게끔 했는지도 모른다.

“독자들에게 본문을 최대한 이해시키고자” 182개의 원주 외에도 역자 나름대로 1550여개의 ‘이해적’ 역주를 달아두어 서양문화에 대한 유다른 교양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는 독자라 하더라도 바슐라르가 거침없이 인용하고 있는 내용들—인명, 작품명, 신화, 지명 등—때문에 글을 따라가는 데 애로를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

서론 「상상력과 가동성」을 비롯해 「공중을 나는 꿈」 「날개의 시학」 「별자리들」 등 12개의

장으로 나뉜 본론, 「문학 이미지」 「기계론적 운동론과 역동론적 철학」 등 2부의 결론으로 구성된 이 책에는 물질 혹은 질료, 운동, 힘, 벡터, 가동성과 역동성, 역동론적 철학, 상상력, 상상영역 혹은 상상세계, 이미지, 꿈, 몽상, 상징과 신화, 연금술, 정신과 승화, 상상력의 철학, 문학하는 인간, 정신의 힘... 등 허다하고 중요한 문학적·철학적 개념들이 이른바 ‘구체미학’이라 일컬어지는 바슐라르만의 독특한 수사학, 시적문체 속에서 자유롭게 개진되고 있다.

이 책은 바슐라르가 설명하는 ‘상상세계’는 프로이트의 콤플렉스 이론이 결정론적으로 도해하려 드는 어두운 무의식의 공간도, 신화적 상징과 개인적 상징들이 어떤 억압에서 강요된 산물이라는 식의 분석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에게 있어 상상세계는 본질적으로 “심미적 현실”이며, “多價的 현실”로서, 각종의 이미지는 “새롭게 시작되는 말”이자, “창조적 微分”을 가진 말이며, 종속적인 것이 아니라 “출발점에 놓인 근본현실”이다. 이에 대해 역자는 “그는 이성보다 상상력이 우위를 차지하는 인식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했으며, 문학을 보는 관점에서의 근본적인 변모를, 그리하여 ‘정서적 공감의 비평’이라 이름할 수 있는 비평의 새로운 한 경지를 열어보였다”고 말한다.

철학서이자, 문학비평의 한 원리를 밝히는 글이며, 아울러 그 자체가 탁월한 문학작품이 되고 있기도 한 이 책을 펴드는 독자들에게 “바슐라르의 적극적인 계시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미세한 것도 놓치지 않고 증폭해 볼 수 있는 정신적 태세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정교수는 당부하고 있다. —정혜옥 기자



## 부처의 생생한 '육성' 담은 초기불교 경전 원시 불교의 근본사상 알기 쉽게 풀어써

—「새 아함경」 펴낸 이연숙씨

**이 책 그 사람** “불교교리 발전의 寶庫”이자 “새로운 사상 발흥의 원천이 될 가능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는 경전”인 「아함경」의 ‘해석서’가 완간됐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대학원에서 종교학을 전공하고 있는 이연숙씨(31)가 ‘풀어 지은’ 「새 아함경」(인간사랑) 전10권이 그것이다. 「아함경」의 모든 내용과 고통스러웠던 종교적 편력을 거치며 얻은 참신한 시각으로 덧붙인 해설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아함경」은 부처의 原音이 가장 생생히 기록된 초기불교 혹은 원시불교의 경전. 그런만큼 불교의 본래적인 모습과 근본사상을 담고 있다. 그러나 ‘수준높은’ 대승불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아함경」을 어중이떠중이 중생에게 설해진 經이자 “出世間(引退)”의 논리를 지녔다는 점에서 하근기·소승 경전으로 분류하여 폄하해 왔다고 이씨는 말한다. 즉 기존의 「아함경」에 대한 이해는 “관조적 사유체계, 引退의 체계, 그리고 自力門 신앙체계”라는 틀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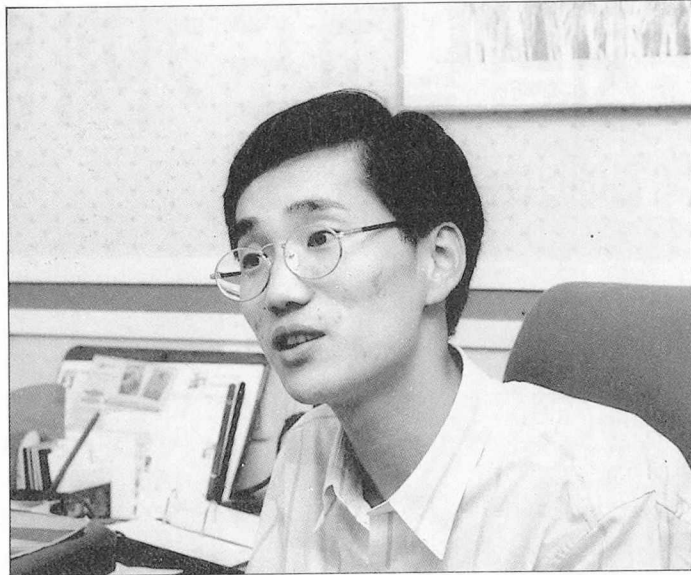
이에 비해 “「아함경」을 만남으로써 10여년간의 종교적 방황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는 그녀는 「새 아함경」이 “신비적·신화적 체계와 復歸의 체계, 그리고 他力門 신앙체계”도 구비한 경전임을 주장한다. 즉 「아함경」의 태반이 神異한 내용을 지니는 바, 자신의 종교체험과 현대물리학의 논리에 의하자면 단지 “상징이나 픽션이 아니라 실제 있을 수 있는 일이며 그걸 믿는 것이 곧 종교가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또한 대승불교의 철저한 “入世間”논리도 「아함경」의

出世間논리가 없다면 이 세상에 출현될 수조차 없었음을 밝힘으로써 “引退와 復歸”의 체계가 조화를 이룬 경전이라고 재평가한다. 그리고 참다운 수행자에 대한 부처의 도움, 불탑신앙에서 얻는 공덕, 천신들의 수호 등의 일화를 예로 들며 「아함경」에서 타력문 신앙체계도 발견하려는 노력을 쉬지 않는다.

「아함경」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시각을 개선하는 그녀는 “아함을 참다이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불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새 아함경」의 해설 부분 중간중간에 아함의 참모습을 간과한 한국불교와 불교지식인의 여러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아함경」의 근본교의에서 보자면 현금의 승가의 풍토와 재가불자의 신행풍토는 “가짜 불교”라는 것. 예컨대 「새 아함경」 제7권 「雜아함·2」의 「擧罪經」 해설에서 그녀는 “늘 참회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채찍질하지 않는 비구는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득실거리는 승단이라면 하나의 이익집단에 불과한 것”이라는 등의 ‘위험수위’의 직언을 서슴없이 적어놓는다.

“「아함경」은 ‘머리 깎았다고 다 중인 것은 아니다’라든가 ‘가짜 중은 내쳐라’ 등 안이한 자세의 승려들의 근거와 기반을 흔드는 내용으로 점철돼 있습니다. 불교개혁의 경구를 많이 담고 있어 부패한 불교의 시대에는 금서로까지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아함경」이 대중에게 보급된다면 그것은 우리 불교의 르네상스이자 제2의 불교전래가 될 것입니다.”

—김중식 기자



## 어른과 아이 함께 읽는 ‘동시 아닌 동시’ 친근한 대화체 어법속 동심의 세계 담아

—「바퀴 달린 모자」 펴낸 신형건씨

**이 책 그 사람** “지금까지 어린이를 위한 시인은 많았지만 정작 어린이를 위하는 시는 많지 않았다”는 반성 아래 한 시인이 어린이들도 함께 읽을 수 있는 시집을 펴냈다. 이 시집을 펴낸 이는 현재 송탄 푸른치과의 원장이기도 한 신형건씨(29).

최근 그가 두번째로 펴낸 시집 「바퀴달린 모자」(현암사)는 “시는 어른이나 어린이의 한 편에만 서 있어야 한다”는 편협한 발상을 순식간에 무너뜨린다. 그 이유를 그는 ‘글쓴이의 말’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결국 나는 이제 꼭 참고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 파분해서 ‘다시 아이가 되고 싶은 어른’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아이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면 온전하지는 못해도 반쯤은 다시 아이가 될 수도 있겠지요. 내가 쓰는 시들은 그런 마음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어른만을 위한 시 혹은 어린이만을 위한 시가 아니라,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읽을 수 있는 시를 쓴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자신이 동시작가는 아니라 말한다. 즉 자신은 어린이의 눈이라는 프리즘에 의해 걸러진 세상을 보고자 노력하는 시인이라는 것.

「바퀴달린 모자」의 시들은 모두 어린이가 같은 또래의 어린이에게 하는 말로 씌어져 있다. 화자가 누구인지 잘 드러나 있는 것도 특징이다. 그의 시작법은 지금까지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시들이 이미지 위주의 농촌서정을 바탕으로 씌어진 것이기 때문에 전원적이고, 과거지향적이거나,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이미지로 짜여져 있었다는

회의 끝에 얻은 결론이다. 즉 우리나라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도시생활을 하고 있는데 농촌의 정서로 그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가 그로 하여금 어린이의 대화에서 시의 형식을 찾게 했다고 한다.

이 시집에는 모두 42편의 시들이 ‘동심의 시’의 형상을 그리며 장난끼 섞인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다. 하지만 그의 장난끼는 그냥 흘러가거나, 웃어넘기면 그만인 소리가 아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될 수만 있다면 / 참새가 되는 것이 좋을 거야. /—친애하는...에... 국민 여러분...에...에... /수천만의 국민들 앞에서 더듬더듬 / 눈치를 보는 것보다야 내키는 대로 즐겁게 / 짹짹거리는 게 더 신나잖아”라는 「장래희망」이라는 시는 동료 시인의 딸이 한 말에서 이미지를 얻어 쓴 것으로 “어린이의 눈이 어른보다 신랄하다”는 그만의 창작기반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의 장난끼는 그림에 의해 부드럽게 나타나는데, 그림을 그린 위승희씨와는 각별한 인연이 있었다고 한다. 그가 처음 펴낸 시집 「거인들이 사는 나라」(진선)를 본 위승희씨가 한번쯤 그림을 그리고 싶은 작가로, 각종 일러스트전을 보고 위승희씨의 그림을 한번쯤 받아 보고 싶은 삽화가로 서로를 점찍고 있던 차에 두사람이 만나게 된 것. 서로에 대해 잘 아는 만큼 작업도 쉽게 이루어졌다고 한다. “하루에 세번, 이를 꼭 닦는 아이들을 매우 예뻐”하는 치과의사이면서, ‘동시작가’가 아닌 시인 신형건씨는 ‘아이들 세상, 어른 세상’을 모두 보기 위해 바쁘기만 하다.

—이성수 기자